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소식

제 3 호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승택 편집인 이재근 주소 제주시 중앙로14길 15-6 | 064)727-0617 | www.jejuregen.org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동문시장은 원도심의 아침을 여는
활기로 가득 찬다

지면안내

2~9

원도심 TALK

- ... 도시의 골목들, 그리고 길에 담긴 이야기
- ... [주민인터뷰] 원도심, 청춘의 삶을 꿈다
- ...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공간
-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주춧돌, 주민협의체 닷 올리다
- ... 오랜 세월 제주의 자연에 순응하며 오늘을 지키는 보물

10~11

원도심 관찰일기

- ... 동문시장의 새벽

12~16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도시의 골목들, 그리고 ‘길’에 담긴 이야기

“길은 살아있다.”

반듯했던 신작로가 골목이 되고
 도로에 가려져 지나치기 쉬워진
 제주성안 옛길은
 여전히 제주사람들의 삶의 공간이자
 역사적 정취가 살아 있다.
 제주 옛길의 이름은 ‘길’(제주어 짚)과
 ‘골’로 나타난다.
 ‘골’의 경우, 길과 그 길을 끼고 있는
 동네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옛길은 이름도 단순한 호칭이 아닌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를 간직한다.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지리적 정보이며 역사적 정보이다.
 제주의 옛길은 지금도 대부분
 도심의 골목길로 살아있다.

“길이 크다 하여 한짓골”

한짓골(남문로)은 현재의 관덕로8길로 남문로터리에서 제주중앙성당, 칠성로 입구까지 이어진 길이다. 옛 제주 시내에서 ‘한짓골’은 제주성 남문에서 칠성골 입구까지 약 450m가량 뻗어 있는 오래된 큰길이었다. 조선시대 성안에서 가장 폭이 넓은 큰길이라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이다. 지금은 길이 넓지 않아 일방통행로가 되었지만, 중앙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주 시내 남과 북을 잇는 가장 대표적인 길이었다. 또한 한짓골을 중심으로 남문셋길, 몰항골, 이앗골, 두목골, 새병골, 동불막골 등 과거의 흔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길들이 함께 나 있다.



이앗골은 남문한길(한짓골)에서 이아로 이어지는 마을 길로 지금의 제주 중앙성당에서 인천문화당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에 해당한다. 서쪽으로 이아(판관집무 공간)로 통하는 길이었고, 옛 이아터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라 이앗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아는 수령의 지방행정을 보좌하는 일종의 지방자치 기관으로 판관의 집무 공간인

찰미현과 그 부속 건물군을 이른다.



남문셋길은 남문에서 서쪽으로 성을 따라 뻗은 좁은 골목길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남성로23길에서 남성로25길로 이어지는 골목길에 해당한다. 비교적 옛 제주 시내의 골목길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다.



몰항골은 제주대 창업보육센터의 동쪽 좁은 골목길로, 한짓골로 나가는 길이다. 옛 만수당약방 앞 통물* 옆에서 동쪽으로 이앗골까지 이어진 길이다. 이아 동쪽 벽을 따라 한짓골에 닿은 말방아*가 있었던 동네 길로 향아리 모양으로 굽은 길을 일컫기도 했다. 이아에 자혜의원이 생기면서 몰항골 북쪽 입구는 의사들의 숙소가 해방 후예까지 관사와 간호원 숙소로 있었고, 골목 안에는

병원 직원들이 집을 얻어 살았다고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병영으로 가는 새로 난 길’이란 뜻으로 과거에는 이 길을 통해 병영으로도 가고, 제주목 관아를 가는데 통했던 길이었다.

동불막골은 민간의 화재가 관아로 번지는 불길을 막는다는 의미로 동쪽의 불길을 막는 길을 말한다. 지금의 제주중앙성당 서쪽에서 동쪽으로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이르는 골목길에 해당한다. 동불막골 서쪽엔 서불막골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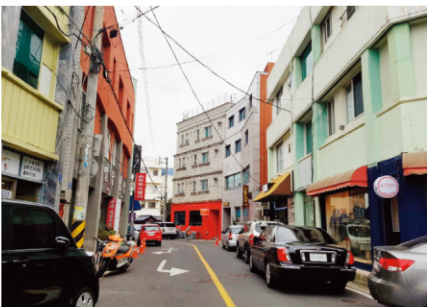


두목골은 두목(斗目), 즉 북두칠성의 눈에 해당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7개의 칠성대 중 하나가 있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중앙로14길에서 중앙로로 이어지는 골목길에 해당한다.



“병영으로 가는 새로 난 길”

새병골은 중앙성당에 이어지는 남문한길(한짓골)부터 구남양방송(현재는 마트21)까지의 골목길인 중앙로12길이다.



*통물 : 용천수가 나는 곳

*말방아 : 곡식을 찧거나 빵을 때 사용하는 생활용구로 말의 힘을 이용하여 옷돌을 돌리게 하여 말방아라 함

제주의 옛길은 단순히 점과 점을 잇는 무미건조한 연결선이 아니다. 조선시대 제주성의 경관과 관아의 위치, 사건 등이 세월을 이겨내 전승되어 온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짓골을 비롯한 제주 옛길의 이름은 원도심의 소중한 문화자원이 틀림없다.





원도심, 청춘의 삶을 품다

원도심으로 모인
꿈꾸는 청년들이 제주를
바꾼다

두목골의 ‘일로와’ 청춘들! 모여라!

5명의 청년들이 모인 크레이티브그룹

안녕하세요, 저는 일로와의 대표 이금재입니다. 일로와는 ‘이리로 와’의 줄임말로 청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87년생부터 93년생 5명의 청년들이 모여 일하고 있는 6년 차 크레이티브 그룹입니다.



홍보대행, 행사기획, 인력운영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2월부터는 원도심에 공유공간을 운영하며 일로와 포함 4개 업체와 1명의 프리랜서가 상주하고 있고 비상주 오피스도 5곳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많아지

고 있어 홍보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올바르게 지원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창업동아리의 변신

처음에는 저랑 건우님이 창업동아리였는데 기획한 디자인 상품들이 공모전에 입상되면서 창업하게 되었어요. 사업적 운영이나 수익모델개발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작했다가 서영님이 입사하면서 핫한 이슈인 먹거리 정보 제공, 행사기획, 청년 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도심으로 일단 가보자

원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었는데 임대 종료 후에 접근성도 좋고 대학교에서 원도심 재생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우리부터 일단 가서 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또 도나 기관들의 원도심 이슈 속에 청년들의 시선으로 공간이라도 만들어내자는 생각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도심에서 직접 공간을 만들고 활동하다 보니 도시재생에 일조하는 기분이어서 보람됩니다.

밤이 무서운 원도심

야간에 활동하기에 무서워요~^^;; 어둡기도 하고 활동하기에 여러 제약사항

이 있어요. 9시 이후에 영업하는 식당들도 별로 없고, 야간행사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주로 시청이나 신제주에서 진행합니다.

예전에 관덕정에서 바람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 관객 반응은 좋았는데 여러 제약사항이 많았어요, 기본적인 공연시설도 부족했지만, 상행위가 안 되니까 플리마켓 등 모객을 위한 활동 제약이 많아 아쉬웠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청년들의 플랫폼을 위하여

저희의 주요 관심사는 청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오다 보니 그동안 회사의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급여 수준이나 근무환경개선 등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재미있게 일하고 회사에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춘!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단어다.
 우리의 청춘들이 함께했던
 원도심의 푸른 봄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잃은
 원도심을 환히 밝혀줄
 오늘의 청춘들을 만나본다.



원도심 콘텐츠 디자인회사로 진화 중

안녕하세요, 저는 (주)아일랜드의 대표 정제환입니다. 뷰티풀제주는 4년 차 디자인회사인 (주)아일랜드의 2번째 쇼룸 매장이고 16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24살부터 34살까지 4명의 청춘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라기보다는 과거의 일상과 연관된 것들을 디자인해서 콘텐츠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용담동에 '아일랜드살롱'이라는 디자인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고 지금은 개별 관광객 대상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원도심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의 지붕이나 창문, 돌담의 형상 등을 아이콘으로 리디자인하고 맵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새로운 것이 없을까?

제가 제주대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시절부터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다수 경험했

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판매되고 있던 제주관광기념품들이 다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주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상품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 기반 상품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제주의 원료를 활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편안한 우리 동네 같은 원도심

처음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주)아일랜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점점 낙후되고 있는 원도심에 조금이나마 청춘의 힘을 보태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특히 삼도2동은 오래된 역사가 있어서 서울의 북촌이나 서촌, 인사동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편안한 우리 동네 같은 전경이나 느낌이 좋습니다. 도심의 콘텐츠를 발견하고 홍보하기에는 원도심이 정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원도심에서 잘 살기

삼도2동 문화예술 거리가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 됐고 디자인 회사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결코 저렴한 수준이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디자인이나 콘텐츠 작업 등 트렌디한 분위기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빠른 느낌이었던 것 같

이웃골의 '뷰티풀제주' 제주 100년을 리디자인하다!

아요. 지금은 주변 상점가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기 정말 힘들어요.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지만 걸어서 볼 만한 것들이 많아야 합니다. 원도심의 콘텐츠만 확실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거든요. 걸으면서 할 거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차들이 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제주가 만드는 콘텐츠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것, 특별히 인식하지 못하는 제주의 것을 다시 보게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청년지원 등도 좋지만, 사업체나 상점가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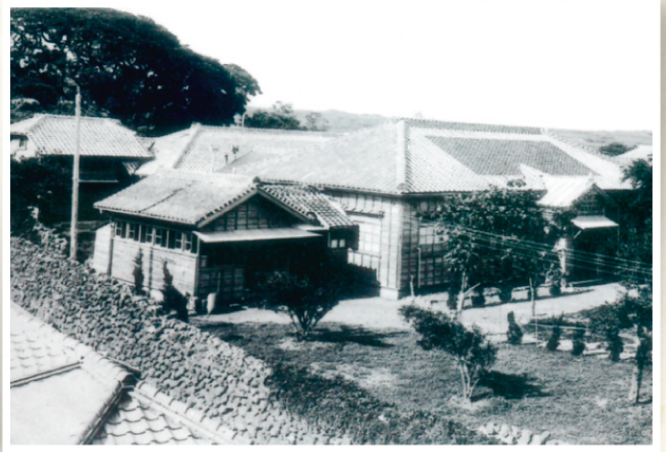
이웃골에 병원이 있을 때 만큼은 아니지만, 주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오후 4~5시만 넘으면 정말 사람들이 없어요.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상점가가 먼저 의견을 모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공간

원도심의 문화 놀이터로 변신중인 예술공간 ‘이아’



2016년 창업보육센터 건물과 제주도 기념물 제34호인 녹나무



자혜의원의 동측에서 바라보고 찍은 사진으로 당시의 돌담은 콘크리트 벽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돌담을 돌아 한릿골로 이어진 골목 역시 그대로다. <출처, 사진으로보는제주역사/제주특별자치도, 2009>

한때 제주도의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이 다시 날갯짓을 시작한다.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이곳, 이 건물 이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처음 이곳은 병원이었다. 1910년 일제가 민심을 회유하기 위해 제주목 관아 터에 근대적 의료기관인 ‘전남제주자혜의원’을 세웠다. 원래는 제주목 이아(吏衙)가 있던 자리이다. 원래 한식 목조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다 1936년 콘크리트로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은 당시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모더니즘 경향이 짙은 절충 양식으로 지어져 건축사적인 가치도 이야기되었으나, 이후 제주도립병원, 제주의료원으로 바뀌고 1997년 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를 짓기 위해 사라지고 말았다. 의료원이 이전하고 제주대학교가 인수해 대학병원으로 사용하다 2009년 병원을 아라동으로 이전하면서 방치되었고 주변 상가 등 원도심 지역경제도 침체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건물의 1,2층은 창

업보육센터와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시험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2017년 봄, 이 건물의 지하를 포함한 나머지 층은 예술공간 ‘이아’로 문을 연다.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을 펼치는 예술가와 일상처럼 예술을 즐기려는 도민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9실을 운영하며 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제주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 전시를 진행한다. 입주 작가들은 제주에서 활동 중인 젊은 작가들과의 협업도 꾸준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다. 개관전으로는 입주 작가들의 프리뷰 전시가 진행예정이다.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공간과 도민들이 스스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의예술공간도 꾸려진다.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실, 카페 테리아, 사무공간 등이 갖춰지고, 제주 원도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VR(가상현실) 아카이브 전시관도 운영될 계획이다.

지하는 연습실 공간으로 운영되는데 전문예술가뿐 아니라 생활예술가도 늘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 중이다. 문화공간사업팀 안태호 팀장은 “이아가 있던 자리는 역사적으로 민심을 보살피던 곳이었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던 곳이었다. 예술공간 ‘이아’ 역시 예술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며 “예술창작거점이자 도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잘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전시나 공연 리허설에 한창인 예술가와 춤 연습 중인 학생들, 나들이 나온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예술공간 **이아**

제주시 중앙로14길 21

문의_제주문화예술재단
www.jcaf.or.kr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주춧돌, 주민협의체 닷 올리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출범



만나면 반가운 모관의 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튼튼한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이승택, 이하 센터)는 20일 오후 7시,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지원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전체모임'을 열었다. '만나면 반가운, 첫 번째 모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도시재생사업과 주민협의체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 등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출범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역사경관, 문화예술,

주민정주, 지역경제, 도시인프라(교통, 교육 등) 5개 분야와 셋물골, 젊은작가모임, 이도1동, 무근성마을회, 마을기업 5개 세부 주민협의체로 나누어진 그룹 대화에 참여해서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풀어놓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민협의체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분발해야

행사 중간에는 지난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방문교류 참여자였던 박정미 씨와 김미경 씨로부터 주민의 시각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 발표가 있었고 참여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또 제주시 도시재생 도민기획단 위원장을 지냈던 오용순 씨는 발언을 통해 "다른 지역들은 도시재생사업이 1~2년 앞서있다."고 한 뒤 "우리도 시작은 늦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들 주민협의체는 주민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들을 제안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주민이 주체가 돼

서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택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주민협의체가 주민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장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라면서 "주민협의체에서 제안된 의견과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총 122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



오랜 세월 제주의 자연에 순응하며 오늘을 지키는 보물

제주향교 대성전 보물지정 단상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2호

제주향교 대성전이 2016년 6월 13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2호 지정되었다.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하고 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쌍수를 들어 축하할 일이다.

보물로 지정된 대성전은 1827년 이견 이후 현 위치에서 큰 변형 없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히 도내에서는 관덕정과 함께 조선시대 건축물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그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제주의 자연조건에 순응하여 축조된 건축양식이 창건 당시의 전통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금번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관덕정과 탐라순력도 등 기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6가지 보물에 더하여 새롭게 보물이 추가되는 것이다.

6백여 년간 제주의 대표 국립교육기관

주지하다시피 제주향교는 조선의 건국과 시기를 같이 하여 창건된 이래 6백여 년의 지난한 세월동안 도민의 인격도야와 정서함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제주의 대표 국립교육기관으로 자리하여 왔다. 조선은 인재양성과 유교이념의 보급을 위해 건국 초부터 대학(大學)으로 수도에 성균관을 두었고, 소학(小學)으로 중

양에 사학(四學)과 지방에 향교를 두어 자제들을 길러내었다.

결론적으로 제주향교가 설치된 것은 태조 원년인 1392년으로, 지방향교로는 가장 일찍 설립된 예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학교조에 보면, 김처례(金處禮)의 ‘제주향교건학비기(濟州鄉校建學碑記)’에 “태조 원년에 학교가 이루어지고, 세종 17년에 다시 지어졌다.(金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 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 鄉校再造)”라고 하였다.

1394년 창건론은 『태조실록』 3년의 기사에 “제주에는 일찍이 학교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 지금부터는 교수관을

두고 토관의 자제 10세 이상을 모두 입학시켜”라고 한 것에 근거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주 내용은 교수관의 파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향교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향교가 없이 어떻게 교수관이 파견되었겠는가? 금번 보물로 지정된 대성전을 일컫는 ‘대성(大成)’은 중국 원나라 무종이 내린

한편, 서울의 성균관과 위격이 같은 대설위 향교인 제주향교에는 1854년에 창건된 계성사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공자를 비롯한 5성의 아버지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이러한 계성사의 존재로 인해 제주향교가 전국의 다른 지방향교와 비교하여 위상의 격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적도 있다. 하지만 당시 유생들의 강력한 반대로 끝내 향교를 없애지는 못했다. 이처럼 옛 선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향교가 1세기여의 성상이 지난 오늘 보물로 지정되었기에 감회는 더욱 새롭다.



계성사



향교 전경

공자의 시호이다. 고려 충렬왕 때 안향이 이 시호를 따서 공자를 모신 전각으로 대성전을 처음 신축했다고 전한다.

제주 유림의 정신적 구심체

여하튼 제주향교는 창건 이래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인 공자의 성훈(聖訓)과 유덕(遺德)을 추모하고 봉사하는 묘우(廟宇)로서 공자의 위패를 정위로 하여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의 4성과 공문10철, 송조 6현, 동국 18현 등의 위패를 모시고 매달 삭망일에 봉향을 하며, 봄과 가을에는 석전대제를 봉행하면서 제주 유림의 정신적 구심체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제주향교에는 계성사뿐만 아니라 옛 문서에 있어서도 갑오방에 급제한 고득중 선생 외 55인의 명단을 기록한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의 명부인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0호 용방록을 비롯하여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1호인 연방록과 청금록, 향안 등의 중요한 유형의 자산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건물과 옛 문서에 대해서도 금번 대성전 보물 지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주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옛 선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보물
제주향교는 일제강점기 때에는 민족정신을 말살하고자 하는 총독부에 의해 완



김봉오 제주문화원장

동문시장의 새벽

우리 일상의 기록

모두가 잠든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동문시장 새벽 장이 선다.
캄캄하고 조용한 원도심의 새벽을
흰히 밝히고 있는 동문시장,
사람들의 활기가 매일 아침 원도심의 원동력이 된다.



05:29



- 아주머니 한분이 채소들을 훑어보고 척척 고른 뒤 구입하고, 차 1대 오더니 젊은 남성이 내려 열린 물건을 뒷좌석에 실음, 그 뒤로 박스를 한가득 실은 트럭과 오토바이가 자가용이 빠져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음



05:12



- 중앙로 상점이 골목시장 맞은편 김밥천국에는 시장상인들이 3테이블, 일반손님이 1테이블 식사 중임, 일반김밥과 식사 메뉴만 판매하고 있음



0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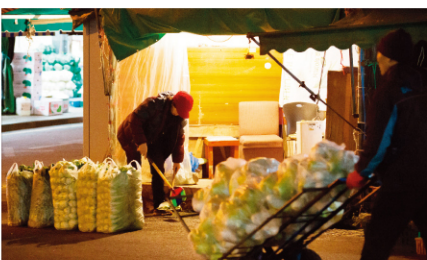
-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점퍼 위에 꽃무늬 앞치마를 입고 있고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밝은 표정과 큰 목소리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커피를 나눠마심



05:34



- 한바탕 트럭들이 빠져나가고 길이 잠깐 여유로운 틈을 타 상회 주인장은 채소를 보기 좋게 정리하고 있음, 점포 앞에 채소 조각들을 쓸기도 함
- 옆 점포의 아주머니 상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음



05:41



- 도로에는 청소차가 바닥을 쓸고 지나감, 노점상 아저씨가 두둑한 현금을 세고 있음



06:00



- 중앙로 도로변에 있던 트럭들이 하나둘 빠지고 마지막 남은 트럭에서 젊은 남성 3명과 사장님은 흥정 중이고 젊은 남성 중 한 명은 계산기를 쉼 없이 두드리고 옆에서 다른 한 명은 장부에 열심히 적고 있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더니 차 1대 오고 채소들을 잔뜩 싣고 감



동문시장
2017.2.16

🕒 03:55

- 중앙로 양쪽 도로변에는 채소를 차곡차곡 가득 실은 트럭이 수십 대 줄지어 서 있음
- 트럭 앞과 트럭 사이에는 채소를 좌판에 깔고 장사를 하고 있음
- 파란색 대형 비닐봉지에 상추가 가득 담겨있음
- 트럭 위에서 아주머니가 아주 빠른 속도로 무를 봉지에 담고 있음
- 현대약국 앞에는 무가 가득 든 비닐봉지가 쌓여있음

04:03



- 새벽 일찍부터 장 보러 나오신 할머니 한분이 채소를 보자 상인 아주머니는 야채를 한주먹 쥐어 꺼내 보여주자 할머니는 한참을 이것저것 살펴보다 3봉지를 구입함



04:15



- 점포 안에 앉아 있는 상인 아주머니는 온풍기 열을 쐬며 돈을 세고, 노점상 아주머니는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음



04:53



- 배추만 가득 실은 트럭 위에서는 아저씨 한 분이 배춧잎을 열심히 다듬어 봉지에 담고 있음
- 트럭 옆 노점상 할머니는 파를 다듬고 있음



04:42



- 중앙로 상점가 골목시장 앞에는 ○○식품, ○○청과가 새겨진 트럭들이 와서 채소를 싣고 계산은 안 하고 그냥 감



04:29



- 두툼한 점퍼와 얼굴까지 꼭 덮은 마스크를 낀 아저씨들은 철 새 없이 카트로 채소들을 옮김



06:08



- 농협사거리에는 아직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고, 트럭에서 채소들을 내리고 카트로 철새없이 나르고 있음, 채소 묶음들을 가득 실은 오토바이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음.
- 농협 건물 앞쪽을 따라 좌판을 깔고 장사 중인 노점상들은 모두 휴대용 난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분은 난로 위에 구멍 뚫은 네모난 강통을 덮어 의자로 사용함



06:24



-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커피를 나눠 마시며 대화 중이고 점포 안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고 있음
- 중년의 아들과 노모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로 옷깃을 여미며 대화 중임



06:50



- 날이 점점 밝아지고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보러 온 손님이 모여들, 손님은 대부분 50~60대로 보임



‘2017 도시재생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 주민 소통 책임질 ‘도시재생기자단’을 소개합니다

도시재생은 주민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도시재생기자단은 원도심 일상 그대로의 모습들을 자유롭게 취재하고 주민들과의 친목 도모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원도심과 도시재생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제주의 매력에 반해
제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재현**입니다.



제주에 입도하게 된 지
어느덧 6년 차에 접
어들고 있어요.
현재는 제주에 거
주하면서 1인 미
디어 <친근한전현
씨>를 운영하고 있

고 정책홍보가를 꿈꾸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기자와 시민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NS 강사로
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늘 ‘제주’라는 지역에 대
해 관심이 많았고 궁금했어요. 그리고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도 가지게 되었
죠. 그래서 진로를 한참 결정하고 고민
해야 할 시기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마친
뒤 “천혜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제주에
서 4년만 살아볼까?”라고 다짐하게 되
었고 ‘인 서울’이 아닌 ‘인 제주’를 했습
니다.

제주는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오로지 나
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
다는 점에서 매력이 충분히 넘치는 도시
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구제주 원
도심이라는 지역은 문화나 역사적으로
도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제주를
점점 알아 간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롭다
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기자를 지원한 이유도 오직 원

도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제주의 매력을
발굴해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제주사
회와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사람
이 커 보이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열
심히 기여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를 제주답게
즐기고 싶은 27살 **김지환**입니다.



어릴 적 살던 곳은 건입
동과 사라봉이었습
니다. 산지 천은
여름철 친구들과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이었고, 건입동과
사라봉 일대는 친구들

과의 놀이터였습니다. 한해 두 해 시간
이 흐르면서 학교가 놀이터가 되었고 책
상이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뒤 살던 곳을 돌아보니
소박하고 시끌벅적한 느낌을 이제는 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그
리워하던 중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20년 넘게 살아온 건입동 일대
주민으로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원도심에 남아
있는 아름다운 장소와 아름다운 이면의
모습도 같이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
도심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을 고민하면서 특히 생태적인 부분을 갈

이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수진입니다.



저는 평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도, 그 사람의 이
야기를 통해 그의
삶을 상상해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해
석한 이야기들을 영상
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제주 도민이 느끼는 굴레를 다룬
웹드라마 ‘234km’를 제작했고, 제주를
통해 변하는 관점을 그린 단편영화 ‘완
다시, 이곳으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주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감정과 이야기들을 영상을 통해 멋지게
세상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
울여 볼 생각입니다. 특히 제주와 사람
들의 삶과 이야기로 가득한 이곳 원도심
곳곳을 누비며 골목마다 담겨있는 다양
한 삶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그리고 그 이
야기를 보는 따뜻한 시각으로 나아가겠
습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금재입니다.



저는 일로와제주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제주의 청년들이 모여 청년들의 시선으로 다양한 기획/디자인/홍보/교육 등을 펼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입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일로와제주]를 검색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제가 기자단에 참여한 첫 번째 이유는 원도심에 살고 있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쯤 회사가 중앙로로 이사하게 되었고 텅달아 사는 곳도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관심에 비해 배움은 부족하여 “내가 살고 일하는 곳에 대한 곳은 좀 알자!” 라는 마음속 외침에 기자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사진을 찍는 일이 있습니다. 찍었던 사진을 꺼내보면 부족했던 사진 실력도 눈에 들어오지만, 그 찍었던 순간이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글도 그러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원도심에 거주하는 청년이자, 주민이자, 회사원으로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느낀 점에 대해 저만의 감각을 담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이 즐거운 소녀’ 김지현입니다.



제주도가 ‘삼다도(三多島)’라고 불리는데, 저는 저를 ‘삼다녀(三多女)’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열정’, ‘도전정신’ 이 세 가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주의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현재 대학교에서 관광을 전공하고 있고 후에는 제주 관광 산업의 미래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항상 배울 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 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배울 만한 것들을 찾아다녔고 이런 의지가 도전정신으로 이어져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앞으로 도시재생기자단 1기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주인으로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주 아주망 이영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어서 호홉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나이가 한 살 더 먹을 수록 감사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아주 가끔 자연해설을 하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의 이 순간이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주의 급변해 가는 도시 풍경과 생활 모습,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마을과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같이 바라보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어눌하고 서툴지만 역동적인 분들의 힘을 얻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만큼 작은 의견도 존중해 주면서 우리의 삶과 더불어 제주도민 및 제주 방문자들의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는 기억의 공간들을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려 합니다. 윤영식입니다.



고산리에서 출생한 저는 차귀뜰이라 불리는 제주 유일의 평야를 바라보면서 큰 꿈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청소년희망센터 신제주사무소장으로 일하며 학생상담봉사자 사회 상담교사, 제주 행복드림상담센터 총무부장, 한국가이던스 제주지부 전문강사, 제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객원상담원으로 상담 분야 및 전문강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항상 배우면서 살라 하기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이기도 하지요. 리더로서도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사우회장으로 교육대학원 재학시절에는 원우회장으로서 상호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 맡겨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때문에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며 웃음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장점입니다.

글솜씨에 재간은 없으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참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노력

도시재생은 주민의 삶의 질을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민이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월 10일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협력 워크숍을 진행했다. 제주시 원도심 일대를 답사하고 8개 지역별 사업개요, 현황, 계획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핵심을 주민참여로 설정하고 주민 스스로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했다.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의 정책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시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재생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4기에 걸쳐 누적 참가신청 수가 3,795명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주민참여 도시학교

“시민들이 스스로 팀을 꾸려서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해법을 찾는 실습을 해보니까 성취감이 아주 높았다.”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도시재생 계획을 만드는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회에 걸쳐 마을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수료생 453명을 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57개의 도시재생사업 구상(안)을 발굴하였고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10년 이후 확보한 국비 규모만 892억 원에 이른다.



도시재생이데이

“도시재생이 뭐예요?”

대구광역시 시민들에게 퀴즈, 스티커 투표, 사행시 짓기, 인증샷 등 다양한 거리 이벤트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도시재생을 알렸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 틈에 고등학생 이모군은 “사회시간에도 도시재생을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지리나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연관돼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요. 도시재생은 우리 사회를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어려운 단어만 잘 설명된다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법률, 세무, 감정평가, 활동가의 현장 이야기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배울 게 많았다.”

도시재생사업 나아갈 길 모색

제주도-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워크숍

전국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재생사업에 대해 다른 지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3월 6일 전주시를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전주센터의 초청으로 각 지역의 공유공간을 재생사업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를 주제로 이뤄졌다. 오전에는 제주도와 전주시의 도시재생사업 개요, 현황,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는 도시재생사업 협력·지원조직인 지원센터와 주민참여 및 실행지원 조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민과의 소통 및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양 센터는 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어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사업 중 하나인 중앙동의 영화의거리-감영지구와 문화재생현장인 선미촌

등 원도심을 탐방하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서로의 재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와 제주 간에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역스토리 입힌 야시장 열어야”

칠성로상점가 발전포럼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월 11일 오후 청소년 문화카페 생느행에서 진행한 제2회 제주칠성로상점가 발전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야간관광(야시장) 사업 추진을 통한 제주칠성로상점가 활성화란 주제로 진행되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양민구 팀장은 ‘도시재생사업과 스토리가 있는 문화야시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양 팀장은 “칠성로 야시장은 음식과 공연에 치우친 일반적인 야시장이 아니라 지역의 스토리를 입혀야 한다.”며 “칠성로는 최초의 오일장이 열렸던 관덕정과



도민의 삶의 애환이 녹아든 산지천을 잇는 장소이다. 이런 스토리를 알릴 마을 해설사, 마을미디어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일도1동에 위치한 칠성로는 제

주 상권의 원조로서 일제 강점기부터 1990년대 초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며 제주 최고의 상권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왔다.

칠성로는 옛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차 없는 거리와 명품 쇼핑 거리 조성을 위한 지중화 사업, 인도 정비,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공

연장도 마련하였다. 이제 칠성로를 스토리 화할 콘텐츠가 필요하다.

제주 원도심의 역사문화를 되살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머무르며, 다시 찾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

제주시 원도심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도시재생지원센터, 청소년 지원기관과 공동 개발·운영 협약 체결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3월 2일 청소년문화카페 생느행에서 '제주시 원도심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제주도평생교육진흥원, 제주청소년문화카페 생느행,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했으며 참여기관은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역사·문화적자원, 인적자원 및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넓히는 등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의 확장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택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원도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협약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춘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형식적인

협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실질적인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원도심에서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봉 생느행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풀어 놓는 장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희 지역아동센터장은 "원도심 지역의 청소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들 네 단체는 앞으로 원도심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공동 개발,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상호 지원, 발전적 협력관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각 기관별 전문성에 맞는 업무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거대상 건물, 밥상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 선정’

철거 예정인 원도심 내의 건물이 제주의 독특한 밥상문화를 담은 음식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한다.

이를 통해 제주항 주변의 수변공원이 원도심 내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공간은 다름이 아닌 용진교~부두 간 확장공사 시 철거대상 건물. 이 건물과 주변 공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낭도고리에 보리밥' 음식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제주의 독특한 밥상문화인 두레반의 공동체 정신을 음식문화로 담아 지역주민과 관광객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추진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진교~부두 간 확장공사 시 철거대상 건물이었던 이 대상지는 앞으로 ▲제주항의 시선을 끄는 공간 디자인 ▲수변공간 ▲다기능 오픈키친 ▲지역주민 교육 및 레시피 연구공간 ▲킨포크 스페이스 등 테마형 공간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해 도시의 활력을 되찾게 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해 지역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요리교실 개설 등 지역의 먹거리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공공디자인



인 측면에서 제주항에서 원도심으로 진입하는 입구의 이정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꾸민다는 계획이다.

이승택 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와 공공디자인 도시 구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